

【국어정책 연속토론회 자료집】

제3회 토론회

‘복엇국’만 되고 ‘복어국’은 안 되나

(성문화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일 시 : (제3회) 2011년 7월 14일 목요일 15:00~17:00

장 소 :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

주 관 : 국어학회, 조선일보

주 최 : 국립국어원

제3회 토론회 일정

일 시	내 용	비 고
15:00~15:05 '5	개 회	손범규(SBS 아나운서)
15:05~15:25 '20	맞춤법 유지 반대 주장 발표	신지영(고려대)
15:25~15:45 '20	맞춤법 유지 주장 발표	김정남(경희대)
15:45~15:55 '10	맞춤법 유지 반대 주장에 대한 지정토론	김인균(신라대)
15:55~16:00 '5	답 변	
16:00~16:10 '10	맞춤법 유지 주장에 대한 지정토론	차재은(경기대)
16:10~16:15 '5	답 변	
16:15~16:45 '30	패널 자유 토론	
16:45~17:05 '20	객석 질의응답	
17:05~17:10 '5	폐 회	

국어정책 연속토론회 전체 주제 (시간과 장소는 동일)

- 제1회(6/23) '후진타오'인가 '호금도'인가(중국 인지명의 외래어 표기를 현지 발음에 따라야 하는가)
- 제2회(7/7) '부산'은 Busan인가 Pusan인가(국어의 로마자 표기 이대로 좋은가)
- 제3회(7/21) '복엇국'만 되고 '복어국'은 안 되나(성문화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 제4회(8/11) 표준어만 되고 방언은 안 되나
- 제5회(8/25) '누리꾼'인가 '네티즌'인가(외국어의 순화를 강화할 것인가)
- 제6회(9/8) 대학 영어 강의를 의무화해야 하는가

사회자,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 사회자

손범규 아나운서
SBS 아나운서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
국어학박사

■ 발표자

신지영 교수

현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던던대학교 SOAS 언어학 박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석사, 학사

2003년 3월~현재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2002년 3월~2003년 2월 나사렛대학교 재활학부 언어치료학과 교수
2001년 3월~2002년 2월 KT 연구개발본부 음성언어연구팀 위촉연구원
1997년 9월~2002년 2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선임연구원
2003년 10월~2008년 3월 MBC우리말위원회 위원

<연구 업적>

신지영(2011) 음운론과 어문 규범, 한국어학 50호, 29-49.
신지영(2010) 한국어 사전 표제어 발음의 음소 및 음절 분포, 언어청각장애연구, 15권 1호, 94-106.
신지영(2006) 국어 음운론 지식의 교과서 수용 실태와 문제점: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33호, 1-36.
신지영(2006) 표준 발음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어학 30호, 133-158.
신지영(2000) 말소리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신지영 외(2010) 열려라, 말,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외 다수

김정남 교수

현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외국인 학생 지원 PD
전 국립국어원 책임연구원

<어문 규범 관련 연구 업적>

한글맞춤법의 원리-총칙 1항의 의미 해석을 중심으로-

漢字語의 한글表記에 나타나는 頭音法則과 그 例外 條項에 대한 考察
SPELLING AND PRONUNCIATION OF KOREAN LANGUAGE: FOCUSING ON THE
SPELLING OF TENSE CONSONANTS

김인균 교수

현 신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서강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국립국어연구원(현 국립국어원) 편수원 및 전임연구원 역임
강원대, 이화여대, 숭실대, 청주교대, 서강대 강사 역임

<연구 업적>

'합성명사의 의미 관계와 사이시옷에 대하여', '사이시옷 교육론'
"국어의 명사 문법 I",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등 논문 및 저서 다수

차재은 교수

현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학사(1990)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석사(1992)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박사(1997)
국립국어원 사전편찬실 편수원(1996~199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 교수(2000~2005)

<연구 업적>

큰사전 고유어 단일어의 음장 분석, 우리어문연구 37, 2010.
이십 세기 초의 한국어 모음 체계, 한국어학 37, 2007.
외래어 표준 발음 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어학 35, 2007.
외 30여편.

목 차

- 일 정
- 사회자,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 발표 1 : 신 지 영_고려대 국문과 교수
성문화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 발표 2 : 김 정 남_경희대 한국어학과 교수
<한글 맞춤법>은 한글 사용의 매뉴얼
- 같고 닦아 유지하자
- 지정토론 1 : 김 인 균_신라대 국문과 교수
신지영 교수의 한글 맞춤법 규정 유지 반대 주장에
대한 토론문
- 지정토론 2 : 차 재 은_경기대 국문과 교수
김정남 교수의 한글 맞춤법 규정 유지 주장에
대한 토론문
- 부 록 : 조선일보 기사
7월 8일자 기사(제2회 토론회 기사)
7월 18일자 기사(세 번째 주제 토론 기사)

발 표 1

성문화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신 지 영

고려대 국문과 교수

■ 발표 1 ■

성문화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신지영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토론을 시작하며

제3회 국어정책토론회의 논제는 “북엇국'만 되고 '북어국'은 안 되나(성문화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유지해야 하는가)’이다. 그런데 이 논제는 자칫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문화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유지하든, 유지하지 않든 간에 '북어를 잘게 뜯어 파를 넣고 달걀을 풀어 끓인 장국'의 현재 표기는 '북엇국'만 되고 '북어국'은 안 되어야 한다. 이것은 성문화된 철자법 규정이 없지만, 영어에서 '빛, 광선'을 의미하는 단어의 표기는 'light'만 되고 'lite'는 안 된다는 것을 통해 아주 쉽게 알 수 있다.

토론에 앞서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성문화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유지하는 데 찬성의 의견을 가진 사람이나 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이나 모두 철자법을 일치 시켜야 한다는 데 이견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두 입장의 차이는 단지 철자법의 일치를 지금처럼 한글 맞춤법이라는 성문화된 '규정'을 통해 할 것인가, 아니면 '사전과 내부적인 지침'을 통해 할 것인가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부디 성문화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유지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혹여 '철자법의 통일을 무시하고 기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테러리스트나 아나키스트'로 보지 말았으면 한다.

이러한 당부로 토론을 시작하는 것은 2005년 필자가 겪었던 경험 때문이다. 그럼 2005년의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논의를 조금 진전시켜 보겠다.

2. 있는 것을 왜 없애려고 하나? 그럼, 있던 것은 꼭 있어야만 하나?

지난 2005년 국립국어원의 의뢰로 현행 표준 발음법 규정이 갖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미 첫 번째 발표자(가톨릭 대학교의 배주채 교수)가 규정이 가진 문제점들을 꼼꼼히 잘 짚어 주었던 터라 시차를 두고 두 번째 발표자가 된 필자는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지적할 수도 없고 매우 난감했다. 그래서 규정을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도를 해 보았다. 즉, 규정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문제들(비현실성이나 규정 자체가 가진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문제 등)을 살펴보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한걸음 물러나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규정을 바라보는 방법이었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표준 발음법이 사실은 표준어를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자법에 따라 표기된 표준어의 '표준 표기형'을 어떻게 읽을(발음 혹은 독음할) 것인가를 규정한 '표준 표기 발음법'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규정이 가진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살펴보았다.

그리고 결론을 통해, 표준 발음법 규정의 목표가 현재처럼 표준 표기의 발음법 혹은 독음법을 규정하는 것이었다면, 이는 성문화된 규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또 달성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는 점을 논의하였다. 즉, 현재와 같은 성문화된 표준 발음법 규정은 그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성문화된 표준 발음법 규정의 개정과 정비를 위해 에너지를 쏟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었다. 아울러, 실제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어떤 단어의 발음형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발음 사전과, 한국어 화자들이 한국어의 발음을 정확히 구사함으로써 음성 언어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발음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교재의 개발이라는 점도 역설하였다.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다'. 그 뜨거웠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왜 있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가? 둘째, 이전의 어문 규정에 발음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가 1988년에서야 겨우 표준 발음법을 갖게 되는 데, 왜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없애자는 것인가? 질문의 내용과 여조를 종합해 보면, 발표를 들던 사람들이 논의의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기 전에, 있는 것을 없애자고 한 내용에 대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국어원에서의 이러한 반응이 흥미로워서 비슷한 내용을 그해 여름 한국어학회에서 발표해 보았다. 역시 반응은 '뜨거웠다'.

사실 필자도 처음 그 발표를 준비할 때는 필자가 그렇게 과격한 결론, 즉 표준 발음법 규정을 없애자는 결론에 이르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현행 표준 발음법 규정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 발견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규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를 논의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앞선 발표자가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에 대해서 너무나도 완벽한 발표를 해 준 덕분에 다른 시각으로 규정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두 번의 발표를 통해, 있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불필요하다거나 그러니 그것을 없애자는 얘기는 무척이나 과격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¹⁾

3. 왜 있었나? 그리고 왜 없어야 하나?

우리가 통일된 철자법을 갖게 된 것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공표되면서부터였다. 그 당시에 어문 규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국어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일된 표기형이 필요했고, 표기법의 통일을 처음 시도하는 만큼 표기법의 제정의 지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표기의 원칙을 세우던 시기에는 철자법의 원칙을 적어 놓은 어문 규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때는 [부거꼭]이라는 발음형을 가진 단어의 표기형을 '복엇국'이라고 쓰도록 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고안한 후에 이를 규정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야 그 규정을 바탕으로 다른 단어들의 표기형도 유추하여 표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문 규정에 의해 단어의 표기형을 판단할 이유가 없어졌다. 표준 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표준 표기형은 이제 표준국어대사전에 있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부거꼭]으로 발음되는 단어의 표기형이 사전에 '복엇국'으로 되어 있으면, '복어국'으로 쓰는 게 아니구나 하고 '복엇국'으로 그냥 쓰면 그만이다. [해콩]으로 발음되는 단어의 표기형 또한 사전을 찾아 '해콩'이라고 되어 있으면 '햇콩'이 아니라 '해콩'으로 쓰면 그만이다. 이를 두고 규정이 이상하네, 표기가 눈에 서네 왈가왈부할 필요가 별로 없

다. 영어 철자법은 훨씬 더 어려워도 열심히 외운 덕에 문제를 삼지 않는다. 왜 그렇게 써야 하나요 하면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제 표준 사전이 있으니 한글 맞춤법을 포함한 성문화된 어문 규정이 필요한 시기는 지났다. 지금 시점에서 성문화된 어문 규정은 불필요를 넘어 표기법의 현실화를 가로막는 애타는 노릇을 하고 있다. 규정을 둔 상태에서 표기법을 현실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문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규정을 개정하는 일은 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규정을 개정하는 일이 규범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꺼릴 수도 있고, 일부 규정이 개정된 것을 규범이 송두리째 바뀐 것으로 오해받을 염려 때문에 규정을 개정하는 일을 망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기법의 현실화는 규정을 바꿈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정을 없애으로써 이루어진다. 규정을 없애고 합의된 표기형을 사전에 올리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엇국'이라고 쓰지 않고 '복어국'이라고 쓴다면 사전에 '복엇국' 대신 '복어국'을 올리면 된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콩' 대신 '햇콩'으로 쓴다면 사전에 '햇콩'을 올리면 된다. 규정을 없애면 비현실적인 표기형의 변경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능해진다.

어차피 어문 규정이 존재하는 지금도 한글 맞춤법 규정을 보고 표기를 결정하는 사람은 없다. 대부분이 표준적인 사전을 찾아보고 사전을 따라 적을 뿐이다. 성문화된 어문 규정이 있든 없든, 이미 어문 규정은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전에 따라 언어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사전에 없는 말의 표기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문 규정이 없어졌다고 표기법의 원칙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표기법의 원칙에 따라서 사용자들은 표기형을 만들어 쓸 것이다. 대부분은 일치하겠지만 일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우세형으로 고정되어 갈 것이다. 그 우세형을 선택하여 사전에 올리면 된다.

사실은 성문화된 어문 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룬 표기형을 사전에 올리고 사전의 권위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표기형을 고정하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이다. 우리처럼 성문화된 어문 규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도라고 한다. 물론, 다른 나라에 없으니까 우리도 없애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우리보다 통일된 철자법의 역사와 모국어 교육의 역사가 훨씬 더 긴 나라들이 왜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철자법에 접근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 두 번의 발표를 다들어 논문을 두고했고, 다음 해 2월 한국어학 30호에 '표준 발음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4. 사이시옷을 중심으로 본 표기법과 발음법의 충돌

오늘 토론회의 논제에 등장한 '북엇국' 문제는 사이시옷 표기와 관련된 것이다. 본론의 마지막에서 사이시옷을 중심으로 한 어문 규정 사이의 충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문 규정에 의해 표기법과 발음법을 규정하는 것이 어떤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다.

사이시옷과 관련된 조항은 한글 맞춤법 30항이다. 30항에 의하면 고유어끼리 결합하거나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합성어에서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거나,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라 덧날 때와, 두 음절로 된 한자어에서 예외적으로 6개 단어(곶간, 셋방, 숫자, 찻간, 뿔간, 횡수)의 경우에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한자어의 예외적인 6개 단어를 제외하고 1) 고유어와 고유어,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거나, 2) 한자어 내에서, 3) 외래어가 들어간 경우에는 뒷말이 경음으로 실현되어도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북어'와 '국'이 만나 만들어진 합성어는 '북엇국'과 같이 사이시옷을 적는 반면에 '손'과 '길'이 만나 만들어진 합성어와 '뒤'와 '칸'이 만나 만들어진 합성어는 각각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아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도 '손길'로 적고, 뒷말이 된소리로 나지 않기 때문에 '뒤칸'으로 적어야 한다. 또, '페트'와 '병'이 만나 만들어진 합성어는 뒷말이 경음으로 나기는 하지만 앞말이 고유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은 '페트병'이 바른 표기가 되어야 한다. 또, '高價'는 [고까]로 발음되기는 하지만 예외적인 6개 단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은 '고가'가 바른 표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적힌 단어를 표준 발음법에 의거하여 발음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아래 보인 (1)은 표준 발음법 2항의 해설에 실린 것이다.

(1) 표준 발음법 제2항 해설 중에서

자음을 나타내는 자모로 표기된 경우에 그 자모에 해당되는 자음으로 발음한다. '쌀'을 발음할 때에 [살]과 같이 하면 되지 않는다. 표기와 달리 발음하는 경우에는 이 표준 발음법에 제시된 규정에 따라 발음하여야 한다. 예컨대 '곱돌'을 발음할 때에는 [곱돌]로 발음하지 않고 표준 발음법 제23항의 '된소리되기' 규정에 따라 [곱똥]로 발음하

고, '밭이'는 제17항의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ㅌ, 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란 규정에 따라 [바치]로 발음한다.

(1)에 따르면 자음을 나타내는 자모는 표준 발음법 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자모 그대로 발음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과 해설에 비추어 보면 '페트병'의 발음은 [페트병]이, '고가(高價)'의 발음은 [고가]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경음으로 소리가 나지만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한자어와 외래어의 합성어, 예외 6개 단어 이외의 한자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표준 발음법에 없기 때문이다.

사이시옷의 표기는 발음에서 출발하여 표기에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데, 표준 발음법을 표기에서 출발하여 표기대로 발음할 것인가, 아닌가를 논의하게 되는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현재 표준 발음법 규정에는 외래어가 들어간 합성어에서 관찰되는 경음화 현상이나 한자어 내부에서 관찰되는 경음화 현상²⁾에 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이 지향하는 것과는 달리 비표준 발음형을 규정에 의해 산출하는 이상한 결과를 얻게 된다³⁾. (2)는 이러한 관계를 정리해 본 것이다.

(2)

표준어의 실제 발음	→	한글 맞춤법	→	표준 발음법
발음		표기형		발음형
[페트병]		'페트병'		[페트병]
[고까]		'고가'		[고가]
		사이시옷 해당 없음		표준 발음법 규정 없음

(2)에 보인 것과 같이 표준어의 실제 발음으로부터 출발하여 한글 맞춤법 규정이 나왔지만, 표준 발음법 규정에 의해 도출된 발음형이 표준어의 실제 발음과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표준 발음법이 실제로는 표준 발음법이 아니라 표준 표기 발음법을 규정함으로써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규정을 통한 표기형의 발음법 완성'이라는, 달성할 수 없는 무모한 시도를 한 결과

2) 표준 발음법에 언급된 한자어 관련 경음화 현상은 한자어의 경우에만 규칙적으로 적용되는 /ㄹ/ 뒤에 연결되는 [+설정성] 자질을 가진 ㅁ 장애음의 경음화 현상뿐이고, 그 이외의 한자어 관련 경음화 현상은 언급되지 않았다.

3) 물론, 표준국어사전에 한자어의 발음형은 발음 정보로 들어가 있다. 따라서 한자어의 표준 발음이 궁극하면 사전을 찾아보면 된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표준 발음법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설을 바탕으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오히려 표준국어사전에 실린 한자어의 발음 정보는 비표준 발음 정보가 되어 버린다. 더욱이 외래어 혹은 외래어가 들어간 단어의 발음 정보는 전혀 사전에 제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을 이용해도 여전히 '페트병'의 경우는 해결될 수가 없다.

초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형태 중심의 한글 맞춤법을 가진 상황에서 표준 표기 발음법은 절대로 어문 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표준 발음법 규정이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표준 발음은 표준 발음법을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표준 발음형을 알 수 있는 발음 사전을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확산될 수 있다.

5.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성문화된 규정의 폐지는 한글 맞춤법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어문 규정 전반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어문 규정을 개정 하자는 논의는 시대착오적이고 소모적이다. 앞서도 논의했듯이 어문 규정은 이미 유통 기한이 만료된 만큼, 성문화된 규정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어문 규정은 없어져야 하고 비현실적인 표기형의 현실화 방향은 합의를 보이는 현실적인 표기형을 사전에 올리는 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성문화된 규정을 통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렵다. 그 결과, 규범의 비현실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규범의 비현실성은 규범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규범을 어기는 것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병폐를 낳게 된다. 성문화된 규정 대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다양한 종류의 사전과 언어 규범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지침서들이다.

예를 들어 한글 맞춤법 규정에 문장 부호와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비현실적이고 비구체적이어서 실제 글쓰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표준 발음법은 있지만 발음 사전은 없어서 한국어 사용자나 학습자 모두를 어렵게 한다.

끝으로 '자장면'에 대한 저항으로 대표되는 규범에 대한 조롱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면서 발표를 마치려 한다. '자장면'에 대한 저항으로 대표되는 규범에 대한 조롱은 바로 어문 규정의 경직성이 초래한 대표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장면'은 외래어 표기법이 선언한 '경음불가'라는 근거 없는 원칙과 표준 발음법을 통해 시도하고자 했던 '규정을 통한 표기형의 발음법 완성'이라는 불가능하고도 무모한 시도의 합작품이다.

어문 규정을 모두 없애면, '자장면'은 이제 외래어 표기법과 표준 발음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두 가지 해법을 갖게 된다. 하나는 '짜장면' 표기를

관례로 인정하여 '짜장면'으로 사전에 올리고 [짜장면]으로 발음 사전을 만드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장면' 표기가 이미 관례로 굳어졌다고 인정하고 '자장면'으로 사전에 올리고 [짜장면]으로 발음 사전을 만드는 것이다. 어떤 해법을 선택할지는 국립국어원이 사용자의 실태를 잘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정하면 될 것이다.

발 표 2

<한글 맞춤법>은 한글 사용의 매뉴얼
- 같고 닳아 유지하자

김 정 남

경희대 한국어학과 교수

| 발표 2 |

<한글 맞춤법>은 한글 사용의 매뉴얼 - 같고 닮아 유지하자

김정남
(경희대 한국어학과)
kim@khu.ac.kr

1. 한글의 탄생과 표기 규범의 출발

한글은 사용 매뉴얼이 있는 세계 유일의 문자이다. 세종은 1446년 한글 반포 당시 《訓民正音》이라는 책을 통하여 한글 자모의 형태나 음가(音價)는 물론이고 그 운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베풀었다. 그것이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 한글의 사용 '매뉴얼'인 것이다. 한글은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는지, 표기법이 어떻게 변천하여 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알려져 있을 뿐더러 특히 그 운용 방법이 이미 100년 전부터 성문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한글 표기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서 동일한 단어에 대한 여러 가지 표기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15세기 이후 20세기까지 한글 표기는 하나의 단어에 대하여 단 하나의 표기 형태로만 고정되어 표기되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표기 형태가 난립하는 혼란상을 보였다. 그래서 통일된 한글 표기 표준 법안이 마련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맞춤법>은 1988년 문교부 고시로 공포되어 1989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지만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909년 국문 연구소에서 마련된 <국문 연구 의정안>에 그 모태가 있다. 물론 <한글 맞춤법(1989)>의 직접적인 전신이라 할 것은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다. 그러나 시초의 안(案)은 <의정안(1909)>에 있었으니 명문화된 한글 표기법에 관한 성문화된 규범의 나이는 가히 100세를 넘었다고 하겠다.

100년 넘는 동안 여러 단계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현재의 맞춤법을 가지게 된

것이 이미 20년을 넘었다. 그 사이 일제 강점기에는 애초의 안에 역행하는 방향으로의 개정도 있었고 1933년의 안(案)도 광복이 되기까지는 빛을 보지 못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오늘날 우리는 <한글 맞춤법>을 가지게 된 것이며 2005년 국어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한글 맞춤법>이 비호를 받고 있다면 받고 있는 다행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기도 하다.

2. 한글 사용의 어려움과 <한글 맞춤법>의 필요성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당시의 한자에 비하면 그 형태가 너무 쉬워서 명민한 사람은 하루 나절에 다 깨치고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열흘이면 족히 배운다고 하였지만 오늘날 한국의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 아니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한글> 쓰기는 결코 쉽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자모 자체를 익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여 쓰는가가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술하였듯이 《훈민정음》도 한글 사용의 매뉴얼의 성격을 갖지만 그 내용이 너무 소략하여 통일된 표기법을 이끄는 데에 부족함이 많았다.

서구의 단어들을 적는 로마자와 달리 한글은 단어별로 주어진 고정된 형태를 그대로 적는 경우보다 단어와 단어, 혹은 형태와 형태를 연결하여 사용하면서 표기상에 모종의 변화가 생겨나는 일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명사류에 조사가 결합하는 일과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어미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일이 대표적이다. 이때 우리는 기본형의 개념을 생각해야 하고 변화와 교체 등을 엄두에 두어야 한다. 이것이 한글 표기를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물론 이것은 한글의 문제가 아니라 한글이 적고 있는 한국어의 특성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어의 특성상 형태적인 변화가 많고 또 단어 형성에 있어서도 배의성(配意性)이 강해 복합어가 유난히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복합어의 표기는 구성 요소들의 단순한 합 이상인 경우가 있기에 역시 형태요소론적인 논의의 대상이요, 문젯거리로 떠오르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한글 맞춤법>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한글 맞춤법>은 더 필요하다. 그것이 없다면 다시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있었던 표기 혼란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 한동안 <한글 맞춤법>이 있으면서도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을 크게 부각시켜 맞춤

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한글 자체의 사용 역사가 한글 창제의 시기에 비하여 일천하기에 <한글 맞춤법>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확산되고 정착되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그러하여 1970년~80년대의 출판물들에서는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기들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는 대부분의 출판물들이 <한글 맞춤법> 규정을 거의 제대로 지키게 되었고 거리의 간판들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틀린 표기들은 거의 외래어 표기 정도가 아닌가 한다. 혹자는 이렇게 맞춤법이 정착되었으니 이제 규범을 버려도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꾸준한 노력 끝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났다고 하여 그것을 버린다면 우리는 또 그 이전 시절의 전철을 되밟을지 모른다. 언어는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요소가 생성될 뿐 아니라 언어 사용자 역시 고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생겨나는 세대들이 계속 추가되므로 그들에게 충분히 교육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혼란상을 되풀이할지 모른다. 어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역시 <한글 맞춤법>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어문 규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시점에 규범을 버릴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한글 맞춤법>을 더욱 정제하여 더욱 더 잘 살려 써야 할 당위성과 연결해야 한다.

3. <한글 맞춤법>의 원리: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흔히 한글은 표음문자이므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만 적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에서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함으로써 ‘소리대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단서가 있다. 그 단서는 ‘어법’인 것이다.⁴⁾ 소리대로만 적어서는 안 되고 소리대로 적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어법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어법 때문에 맞춤법이 어려워졌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4) ‘어법’을 단서라 한 것은 ‘하되’ 때문이다. 그간의 <한글 맞춤법> 총칙에 대한 해석에서 ‘소리’와 ‘어법’을 두 개의 대척적인 기동으로 해석하는 견해들이 지배적이지만 본고에서는 ‘소리’와 ‘어법’을 어느 하나만 지켜야 하는, 혹은 지켜도 되는 두 개의 다른 원리로 보는 관점을 취하지 않는다. 김정남(2008)에서 천명하였듯이 <한글 맞춤법>을 꿰뚫는 총칙의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원리는 ‘소리대로’를 지킨 여러 가지 표기 형태들 중 단 하나의 표기 형태를 ‘어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57항의 ‘그 밖의 것’에도 같은 소리를 내는 서로 다른 표기 형태들(단어들) (불이다:부치다, 조리다:졸이다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듯이, 한글은 기본적으로 같은 소리를 적을 표기 방법이 단 하나만 존재하는 표기 수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키되, 어법에도 맞게 되어야 하나의 표기가 확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어법’이 없었다면 한글은 오히려 더욱 더 어려운 문자가 되었을 것이다. 어법에 맞지 않고 소리대로만 적었을 때 빗어질 혼란을 생각해 보라. 가령, ‘올아버니’, ‘오라번이’, ‘올압어니’, ‘올압언이’ 등 많은 이표기(異表記)들이 난무(亂舞)하여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위의 네 가지 표기 형태는 모두 [오라버니]라는 소리를 내므로 “소리대로만 적었을 때 위 네 가지 중 어느 것으로 적어도 틀리다고 할 수 없다.”⁵⁾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어떤 표기로 해도 관계가 없다면 하나만 옳다고 하지 말고 다양한 표기 형태를 인정하는 쪽이 더 좋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영어에서 color도 맞고 colour도 맞고, dialog도 dialogue도 다 허용되는 것처럼 한국어도 한 단어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태를 인정하자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국식 영어 철자와 미국식 영어 철자의 차이는 좀 다른 각도로 보아야 한다. 그들은 같은 단어를 달리 적지만 발음이 다르지는 않다. 주지하다시피 영문 표기는 발음과 철자의 상관성이 한글 표기만큼 높지 않아서 그것이 가능하기도 하다.⁶⁾ 가령 표기가 바뀌어도 동일한 발음이 유지되고 같은 단어로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글 표기의 경우에는 한 단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 즉, 상식적인 차원에서라도 표기가 다르면 다른 단어인 것이다. 물론 반대로 같은 표기가 다른 단어인 동형어 혹은 동철어의 예는 한국어에 매우 많다.

한글 표기는, 사전에 올라 있는 매 단위들을 그대로 적는 영어 표기 방식처럼 규칙이 간단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다. 가령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이 사전에 올라 있지도 않고 용언의 활용형들이 사전에 다 올라 있지도 않다. 그리고

5) 우리가 여기서 ‘오라버니’를 최종적인 단어 형태로 결정한 것은 이 단어가 ‘오랍’과 ‘어니’로 분석되지만 ‘어니’가 생산적인 접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원형을 따로 밝혀 적지 않고 이어 적도록 한 것 때문이다. ‘뒤꿈치, 꼬트머리, 꼬락서니’ 등에서 어근과 접사 부분을 나누어 끊어 적지 않고 하나로 이어 적는 이유와 동일하다. 반대로 ‘-이’ 같은 생산적인 접사가 결합한 단어라면 ‘배알이, 벼훑이’와 같이 끊어 적었을 것이다. 물론 ‘실거지’는 ‘-이’가 결합했어도 이어 적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끊어 적는 요건이 어근(어간)의 유언성과 접사(어미)의 생산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끊어 적을 요건을 갖춘 경우 끊어 적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어 적는 것이 ‘어법’이라고 하는 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한글 맞춤법> 총칙 1항의 ‘어법’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그동안의 권위 있는 해석 중 하나인 기본형을 밝혀 적는 것이 ‘어법’이라고 하는 해석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김정남, 2008 참조)

6) 영어에서는 표기와 발음의 대응이 일정하지 않아 발음 사전이 매우 중요하다. 그들의 문자가 비록 음소문자이지만 사전을 보지 않고 철자만 보아서는 제대로 읽을 수 없는 것이다. 표기 형태와 발음 형태를 달리 익혀야 한다는 것은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사람뿐 아니라 영어 모어 화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영어 사용자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요소이다. 혹자는 한국어에 대해서도 표기와 별도로 발음 사전을 만들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글이 부스럼을 만드는 일이다. 즉, 기왕에 있던 표기와 발음 사이의 상관성을 일부러 흩뜨려 놓고 다시 발음 사전으로 보완하자는 것은 연발 도로 공사식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발음 사전이 생기는 날 한국의 어린이들은 미국의 아이들처럼 국어책 하나 제대로 소리 내지 읽지 못하여 이른바 파닉스를 따로 배워야 하는 고충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미 어린이들의 한글 교육에서 이른바 통문자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영어식으로 단어 단위로 형태를 외우게끔 가르치는 방식을 널리 채택하고 있는 불운한 현실에 이런 고충마저 안겨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간절한 바람이다.

생산적인 접사가 개입한 파생어들이 사전에 다 실려 있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합성어들도 사전의 표제어에서 누락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한글 맞춤법>과 같은 표기의 원리 및 규칙 등을 상술해 놓은 규범이 없다면 구어를 옮겨 적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형태소들의 결합이 빈번한 한국어에서 그것들의 연결형을 어떻게 적을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한글 맞춤법> 세부 규정들에 속속들이 스미어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진 규정대로 하면 이른바 “형태음소적 원리”가 적용되어 순수하게 소리 나는 대로만 적어서는 곤란하고 소리를 지키되, 동시에 규칙을 함께 익혀서 적어야 한다. 앞에서도 누누이 강조하였듯이 소리 나는 대로만 적으면 일견 그 표기가 쉬울 것 같지만 한 단어의 표기 형태가 결코 한 가지로 통일되기 어려운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어법을 고려한다.

여기서 우리는 문자란 본래 소수의 사람이 적어서 다수의 사람이 읽는 것이므로 ‘적는[記]’ 소수의 사람을 편하게 할 일이 아니라 ‘읽는[讀]’ 다수의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이익섭(1992)의 명언을 다시 짚어 보게 된다.

4. 왜 ‘복옛국’만 되고 ‘복어국’은 안 되나

왜 ‘복옛국’만 되고 ‘복어국’은 안 되는가? 앞에서 말한 ‘올아반이’와 ‘오라버니’는 발음이라도 같지만 ‘복옛국’과 ‘복어국’은 발음조차 같지 않다. ‘복옛국’은 [부겨쪽/부겨쪽]으로 된소리가 발음되지만 ‘복어국’은 [부겨국]으로 발음된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사이시옷이 없는 표기 형태를 정책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그들이 실제로 우리와 같이 [복어쪽]으로 된소리 발음을 하고 있다면 ‘복옛국’이 아닌 ‘복어국’으로 적는 것은 <한글 맞춤법>의 “소리대로”라는 기본 원리에도 위배된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의 차림표 등에서 ‘복어국’이라는 표기가 자주 등장하고 일반인들 중에는 이것이 옳은 표기라고 알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시옷 표기가 특히 첨예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이시옷 규정이 1988년 <한글 맞춤법> 개정 당시부터 자주 비판거리로 떠올랐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북한에서는 사이시옷을 되도록 쓰지 말자는 방식으로 <조선말 규범집>을 만들어 남북의 견해 차이를 극명히 보여 주기도 한다. 게다가 1988년의

7) 북한의 언어 문자 정책에 대한 내용은 고영근(1994), 고영근(2000)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개정 이전부터 고유어가 포함된 단어뿐 아니라 한자어로만 이루어진 단어에도 적극적으로 사이시옷을 표기에 반영하자는 주장을 강하게 해 오며 그 주장을 반영한 사전까지 편찬했던 한글학회의 의견이 1988년의 개정에서 여지없이 무너진 것 등 여러 가지 배경적 요소들이 개입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머리방’과 ‘머릿방’이 다른 의미를 가진 별개의 서로 다른 단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열쇠고리’는 ‘열쇠고리’일 뿐 ‘열쇠고리’라 할 수 없으나 ‘윗도리’는 ‘위도리’가 아니고 ‘콧등’ 역시 ‘코등’이라 적지 못함을 안다. ‘빗자루’는 ‘비자루’가, ‘담배대’는 ‘담배대’가, ‘셋별’은 ‘새별’이 아니듯이 ‘복옛국’은 ‘복어국’이 아니다. 요컨대 소리가 관건인 것이다. 최근의 신조어인 ‘치실[dental floss]’ 같은 단어는 ‘칫솔’과 달리 ‘칫실’이 아닌 ‘치실’로 적으며 ‘노래방’, ‘빨래방’ 등의 신생 단어들이 대개 사이시옷 없이 쓰이고 있는데 이는 이들 신어들이 발음상으로 경음화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⁸⁾

‘복옛국’ 외에 ‘김칫국[김치쪽/김칠쪽]’, ‘만둣국[만두쪽/만둔쪽]’, ‘고깃국[고기쪽/고길쪽]’, ‘두붓국, 못국, 배춧국’ 등 많은 비슷한 조어 방식의 단어들이 경음화를 수반하므로 이들 표기에는 된소리를 나타내는 사이시옷을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사이시옷 표기에 관한 규정은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세부적인 표기 규정이 없다면 우리의 어문 생활은 어떠한 혼란에 빠질지 모른다.⁹⁾ 성문화된 규범이 없었던 개화기 무렵에는 소학교용 교과서에서조차 한 단어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적어 놓은 혼란스러운 표기 행태가 발견되기도 했다. 가령 <소학독본>에서는 2쪽에서 ‘ㅎ여스니’로 적고, 5쪽에서는 ‘ㅎ옛스니’로 적고 있으니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성문화된 표기법 규정, 즉 <한글 맞춤법>이다. <한글 맞춤법>의 사이시옷 규정은 좀 더 많은 복잡한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뒷풀이’는 안 되고 ‘뒤풀이’만 되는 이유와 ‘뒤쪽’이 맞고 ‘뒷쪽’은 틀리며 ‘뒤문’이 아니라 ‘뒷문’인 이유를 설명한다. 또 ‘해님’이 맞고 ‘햇님’은 안 되며 ‘수

8) 조어 과정의 문법은 역사적으로 변화된 예가 상당히 많다. 복합어 형성에서의 ‘르’ 탈락 현상이 현대 국어 조어법에서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따님, 아드님’과 달리 ‘달님’, ‘별님’이다.)과 ‘ㄴ’ 첨가 현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더 불규칙한 현상이 되었다. 고유명사 ‘하늘’을 ‘하늘’이 아닌 ‘하거울’로 발음하는 현상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합어 형성에서 사이시옷의 개제가 느슨해진 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세 번째 이유로 ‘노래방’이 아닌 ‘노래방’이 생겨났고 이는 현행 <한글 맞춤법>상으로도 옳은 표기이다. ‘노래방’을 [노래방]이나 [노래방]으로 발음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9) 물론 사이시옷에 관한 규정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표적으로 ‘복옛국’이라 적고 그것만을 규범에 맞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원장국’이나 ‘토란국’ 등 앞쪽 구성 성분이 받침이 있는 단어 경우에는 ‘국’이 [쪽]으로 소리 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사이시옷을 적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춧발’과 ‘등발’의 차이가 나기도 한다. 둘 다 된소리 현상을 수반하지만 된소리 표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사이시옷은 ‘춧발’에만 있는 것이다.

말'이 맞고 '숫말'이 틀린 이유를 알려준다. 또 이 규정에 대한 참된 이해를 통해 '수캐'와 '수계'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문화된 규범에 따라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형태도 결정된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하여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규정이 없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난립하는 표기 형태 속에서 허우적댈지 모른다.

학부 편집국(1895), 소학독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자료.

5. <한글 맞춤법>은 한글 사용의 매뉴얼 - 같고 닮아 유지하자

기본적으로 같은 표기는 같은 단어, 다른 표기는 다른 단어라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한 단어를 굳이 달리 적을 이유는 없다. 소리대로 적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되, 어법에 맞도록 하면 단 한 가지 형태로만 고정되므로 우리는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만 지키면 표기법의 혼란을 없앨 수 있다.

<한글 맞춤법>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한글 사용의 ‘매뉴얼’이다. 우리는 이 매뉴얼이 우리의 어문 생활을 편리하게 해 줄 것이라 믿으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노력에는 <한글 맞춤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같고 닮는 노력도 포함된다고 믿는다.

아울러 우리는 영어어나 세계 어떤 언어에도 없는 불필요한 어문 규범이 있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어만이 어문 규범을 갖고 있음에 고마워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근(1994), 통일시대의 어문문제, 길벗.
 고영근(2000), 북한 및 재외 교민의 철자법 집성, 역락.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김정남(2008), 한글 맞춤법의 원리 - 총칙 제1항의 의미 해석을 중심으로 -,
 한국어 의미학 27, pp. 21-44.
 이익섭(1992), 국어 표기법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이희승·안병희·한재영(2010), 한글 맞춤법 강의(보정판), 신구문화사.

지정토론 1

한글 맞춤법 유지 반대 주장에 대한 토론문

김 인 균
신라대 국문과 교수

성문화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김인균
(신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우선 저를 포함한 이 토론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1988년 고시된 ‘한글 맞춤법’ 규정에 문제가 꽤 있음을 전제하고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신지영 선생님은 성문화된 ‘규정’ 대신 ‘사전과 내부적인 지침’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지영 선생님은, 표준 표기형은 이제 표준국어대사전(1999)에 있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므로 표기법의 현실화는 규정을 바꿈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없앴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전에는 모든 형태, 내용을 등재기술할 수 없습니다. 각 사전마다 등재 원칙 및 기술 방법이 있어 표제어 및 뜻풀이, (당연히 발음 정보를 포함한) 기타 여러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완벽한 어문 규정이 이상이듯 완벽한 사전(‘발음 사전’ 포함)도 이상일 뿐입니다. 선생님은 규정을 없애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표기형을 사전에 올리자고 하셨는데, 합의는 언제 어떻게 합니까? 사용 빈도에 의한 객관적인 잣대, 국어 및 표기 전문가의 공정한 판단 등 어떠한 기준으로 언제 합의하여 ‘표준 표기형’을 정합니까? 사실 이러한 합의심의는 지금의 어문 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계신바 외래어(외국어)든 국어든 합의심의하고 공지하는 행위는 항상 실생활의 언어 사용보다 뒤집니다. 맞춤법(표기법) 원칙에도 맞지 않는 형태가 이미 고정화되어 쓰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처럼 관용에 따라 그 표기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사실 선생님은 규정을 없애면 비현실적인 표기형의 변경이 개별적으로 가능해진다고 하시면서도, 어문 규정이 없어졌다고 표기법의 원칙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표기법의 원칙에 따라서 사용자들은 표기형을 만들어 쓸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표기법의 원칙은 대체 무엇입니까? 결국 ‘한글

맞춤법'의 원칙, 발음과 어법을 고려한 것 아닙니까?

선생님은 6년 전의 '흥미로운' 경험을 말씀하셨고 오늘 이 발표문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표기의 원칙을 세우던 시기에 [부거꼭]이라는 발음형을 가진 단어의 표기형을 '복엇국'이라고 쓰도록 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고안한 후에 이를 규정으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6년 전에는 표준 발음법이 표준어를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자법에 따라 표기된 표준어의 '표준 표기형'을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를 규정한 '표준 표기 발음법'이라고 하시면서 이는 성문화된 규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달성할 필요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사이시옷과 관련한 발표문 (2)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여 선생님은 ('표준 발음법'을 포함한) 어문 규정의 폐기와 ('발음 사전'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사전 보급 및 언어 규범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언어 규범 지침서 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철자법에 따라 표기된 표준어'이란 결국 발음뿐만 아니라 어법까지도 고려한 한글 맞춤법의 원칙에 따라 표기된 표준어가 아닙니까? 맞춤법은 표준어를 발음과 어법에 맞게 쓰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정해진 것으로 이 모순된 두 조건의 기막힌 조화를, 그간의 공시적, 통시적, 음운론적, 형태-통사-의미론적 국어(학) 지식을 집약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내세운 것이니만큼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선생님이 '표준 표기 발음법'이라 하신 '표준 발음법'의 제1장 총칙에도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라고 되어 있어 실제 발음만으로 표준 발음을 정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현재 어문 규정은 충분하지 않고 명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해설을 제공하였지만 이 또한 불완전합니다. 어문 규정과 사전은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습니다. 법 자체로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에 법 해석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법 조항의 오류를 해소하고자 법을 개정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문 규정이 국어의 모든 어문을 담아낼 수 없기에 해설과 사전이 있는 것이며, 변화하는 어문을 반영하고 규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문화된 어문 규정이 있든 없든, 이미 어문 규정은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전에 따라 언어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진대 성문화된 '규정' 대신 선생님이 제안하신, (다양한 종류의) '사전'과 (언어 규범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지침서'가 지금의 어문 규정

과 해설 및 표준국어대사전 같은 사전류와 다른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의 규정도 행정 기관의 '고시(告示) 수준에 머물러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 지침(manual)일 뿐입니다.¹⁰⁾

말씀하신바 성문화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유지하든, 유지하지 않든 '복어를 잘게 뜯어 파를 넣고 달걀을 풀어 끓인 장국'의 현재 표기는 규정대로 '복엇국'만 되고 '복어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분발하여 완벽하고도 온전한 어문 규정과 사전을 만들고 진정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10) 고시 수준으로 정한 데는 고시한 문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 내에서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보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고시보다 상위 규범인 헌법, 명령, 조례, 규칙 등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지정토론 2

한글 맞춤법 유지 주장에 대한 토론문

차 재 은
경기대 국문과 교수

한글 맞춤법 유지 주장에 대한 토론문

차재은
(경기대 국어국문학과)

< 필자의 요청에 의해 토론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부 록

조선일보 기사

朝鮮日報

2011년 07월 08일 금요일 A25면 문화

Pyeongchang? P'yongch'ang?

올림픽 여는 평창 표기에 큰 관심

국어정책토론회, 로마자표기법 놓고 공방

"그러면 평창 동계올림픽 표기도 또 바뀌어 하나요?" "평창은 예외로 둘 수도 있지요."

언어를 다해가는 국어정책토론회 두 번째, '부산은 Busan인가 Pusan인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 이대로 좋은가)를 놓고 7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마침 이날 새벽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평창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립국어원이 주최하고 국어학회·조선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장대비 속에서도 교수·학생·시민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손병규 SBS 아나운서 사회로 이호식(숙명여대 국문학)·이효영(서울대 언어학) 교수가 '현행 유지' 편에서, 엄익상(한양대 중문학)·이성미(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미술사) 교수가 '개정 필요' 편에서 공방을 벌였다.

쟁점은 2000년 7월 정부가 고시한 현행 표기법이 옳으나, 이전 MR(매번-라이사우) 표기법을 되살리느냐는 것이었다. 평창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Pyeongchang, 하지만 MR 방식을 쓰면 평창이 '평양' 아닌 '평창'으로 읽게 하려면 P'yongch'ang으로 써야 한다.

이호식 교수가 "이미 평창의 영문이 현행 표기법대로 알려졌는데 또 바꾸면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하자, 이성미 교수는 "평창 같은 경우는 예외로 두면 된



이인환 기자 inahwan@chosun.com 7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국어정책토론회 참석자들. 왼쪽부터 이성미 한중연 명예교수, 엄익상 한양대 교수, 손병규 SBS 아나운서, 이호식 숙명여대 교수, 이효영 서울대 교수. 동영상 보기

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표기법을 MR로 못 바꿀 게 없다"고 맞받았다. '개정 필요' 쪽의 엄 교수는 "로마자표기법은 외국에 우리 것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을 배려한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효영 교수는 "다시 고치느니 그 비효율로 지금 표기법을 외국인에게 더 잘 알리는 게 낫다"고 했다.

방정석에서도 의견이 쏟아졌다. 토론을 참석 위해 일부를 올라왔다는 전남 순천대 언어자원학과 박종철 교수는 "중국어에도 '칭다오'를 로마자 Q로 시작하지 만 칭으로 발음한다. 외국인이 우리식 발음대로 읽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충배 고려대 영어교 육학과 명예교수는 "과거 표기법 개정 때 참여왔는데 오히려 나온 내용 상당 부분이 예전에 검토된 것들이다. 개정론자들은 그때 배경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조선대학교 토론방에도 열기는 이어졌다. 7일 현재 54 건의 의견이 올랐다. 이철일씨는 "부산의 첫 자음이나 조항의 첫 자음을 'P'로 같이 쓰면 되겠다. 동명어와 동음을 똑같이 쓴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리 지명을 외국인에게 쉽게 발음하러 애쓰는 게 맞다"며 현행 표기법을 지지했고, 민영복씨는 "외국인이 읽지 못하는 우리만의 표기법은 문제"라며 개정을 권유했다.

다음 3회 토론회 주제는 '북아국만 되고 북아국은 안 된다' (성문화된 한글 맞춤법 규정에 관한 토론)로 오는 21일 오후 3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다. 발표단은 18일 본지에 사전 게재된다. 전병근 기자 bkjeon@chosun.com

朝鮮日報

2011년 07월 18일 월요일 A23면 문화

먹을 땐 북어국 글쓸 땐 북엇국?

국어정책토론회 (3) 성문화된 맞춤법 규정 필요한다

국어정책토론회 세 번째 쟁점은 성문화된 한글맞춤법 규정의 존폐 여부다. 맞춤법 규정을 국가가 고시해 강제하는 나라는 많이 없다. 한글맞춤법이 등장한 것은 개화기 때 한글 표기의 혼란이 극심해 서양에서 발표한 한글맞춤법 통일안이 이후 국가 규정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188년 맞춤법 개정 이후 출현 한체안이 지켜졌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사자표기법, '북엇국' 등 특정 제형이 계속된 것은 표기법 통일안이 없었다. 이례는 국가차별 맞춤법 혼란이 심해져 한글 표준국어사전에 이르러 성문화된 규정은 통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현행 표기 기준으로서 맞춤법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朝鮮日報

2011년 07월 18일 월요일 A23면 문화

2011년 07월 18일 월요일 A23면 문화

성문화된 어법 없으면 혼란 온다

오라버니란 해도 울아버니·오라버니·울아버니 난무할 것

모든 법은 우리를 구속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침묵과 평안과 자유를 느낀다. 한글 맞춤법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있어 우리는 일상의 어떤 생활에서든 편리함을 누린다. 1888년 한글맞춤법이 제정되면서 어문 규범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졌다. 세부 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져 갔다. 하지만, 띄어쓰기도 예외가 아니며 특히 사자표기 문제에 이목이 집중됐다. 개정에는 그만한 사유가 타당할 근거들이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우선 눈에 띄는 작은 문제들을 지적하게 되었다. 글자가 한글맞춤법을 벗어나는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귀찮은 반대쪽이 아니라 초창기들을 태울 수는 없는 일이다. 한글맞춤법은 소리대로 적되, 아랫에 맞도록 써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오래'와 '오래'를 구분 할 필요가 없다. '오래'와 '오래'는 한글은 더 어려운 문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아랫에 대한 고려 없이 소리대로만 적었을 때 보여준 혼란을 생각해 보라. 기형 '올아버니', '오라버니', '올아버니' 등이 난무할 것이다. 이 모두가 소리의 똑같이 '오라버니'로 나가기 때문이다.

'북아국'이 특이한 편이 되는 것은 시중에 표기가 잘못된 차림표가 많기 때문이다. 북한의 '조선말 규범법'은 사자사투어 없는 표기법을 채택해 '북아국'을 쓴다고 하지만 우리 우리소리 규정은 '북아국'을 채택하기로 정했다. '북아국'으로 써서는 그 식재 발음은 '북아국/북아국' 소리가 나지 않는다. 북한에서는 우리표로 '북'으로 발음되는 발음을 하고 있지만 표기기는 '소리대로'라는 기본 원리에 따라 '북엇'으로 쓰는 게 맞다.

맞춤법 규정 필요하다

맞춤법 규정 필요했다

한글맞춤법에 따르면 찾는 것은 그것을 '법'으로 하기 때문이다. '법'이라고 생각하거나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을 근거로 하고 그 규정을 근거로 하고 그 규정을 근거로 하는 규정이 있으면 되고 제언은 맞지 않느냐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 규정과 현실이 맞지 않는 걸 어떻게 하면 규정을 바꾸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게 된다. 하지만 한글맞춤법은 법이 아니라 '법'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는 한글로 쓰는 방법, 철자법을 통일할 기호대로 한 것이다. 그것은 1888년 한글맞춤법 통일안이 정정·표준되면서부터였다. 당시 성문화된 맞춤법 규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지만, 표기법의 통일을 처음 시도하는 만큼 국가법 제정이 필요했다는 것과 표기법이 공중물 때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표기 원칙을 처음 세운 시기에선 철자법 원칙을 담은 성문화된 규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북아국'이라는 발음을 가진 단어를 표기할 때 '북아국'이라고 쓰도록 하는 일반화된 원칙을 고안한 후에 이를 규정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규정을 바탕으로 다른 단어들의 표기법도 유추해서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어떤 규정에 근거해 단어를 표기할 수 없을 이유가 없다. '표준국어사전'이 있기 때문이다. 표준 표기법은 이제 사전에 있는 대로 따르거나 하면 된다. 바뀌어야

성문화된 어법 없으면 혼란 온다

오라버니란 해도 울아버니·오라버니·울아버니 난무할 것

모든 법은 우리를 구속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침묵과 평안과 자유를 느낀다. 한글 맞춤법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있어 우리는 일상의 어떤 생활에서든 편리함을 누른다. 1888년 한글맞춤법이 제정되면서 어문 규범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졌다. 세부 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져 갔다. 하지만, 띄어쓰기도 예외가 아니며 특히 사자표기 문제에 이목이 집중됐다. 개정에는 그만한 사유가 타당할 근거들이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우선 눈에 띄는 작은 문제들을 지적하게 되었다. 글자가 한글맞춤법을 벗어나는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귀찮은 반대쪽이 아니라 초창기들을 태울 수는 없는 일이다. 한글맞춤법은 소리대로 적되, 아랫에 맞도록 써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오래'와 '오래'를 구분 할 필요가 없다. '오래'와 '오래'는 한글은 더 어려운 문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아랫에 대한 고려 없이 소리대로만 적었을 때 보여준 혼란을 생각해 보라. 기형 '올아버니', '오라버니', '올아버니' 등이 난무할 것이다. 이 모두가 소리의 똑같이 '오라버니'로 나가기 때문이다.

'북아국'이 특이한 편이 되는 것은 시중에 표기가 잘못된 차림표가 많기 때문이다. 북한의 '조선말 규범법'은 사자사투어 없는 표기법을 채택해 '북아국'을 쓴다고 하지만 우리 우리소리 규정은 '북아국'을 채택하기로 정했다. '북아국'으로 써서는 그 식재 발음은 '북아국/북아국' 소리가 나지 않는다. 북한에서는 우리표로 '북'으로 발음되는 발음을 하고 있지만 표기기는 '소리대로'라는 기본 원리에 따라 '북엇'으로 쓰는 게 맞다.

맞춤법 규정 필요하다

맞춤법 규정 필요했다

한글맞춤법에 따르면 찾는 것은 그것을 '법'으로 하기 때문이다. '법'이라고 생각하거나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을 근거로 하고 그 규정을 근거로 하는 규정이 있으면 되고 제언은 맞지 않느냐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 규정과 현실이 맞지 않는 걸 어떻게 하면 규정을 바꾸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게 된다. 하지만 한글맞춤법은 법이 아니라 '법'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는 한글로 쓰는 방법, 철자법을 통일할 기호대로 한 것이다. 그것은 1888년 한글맞춤법 통일안이 정정·표준되면서부터였다. 당시 성문화된 맞춤법 규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지만, 표기법의 통일을 처음 시도하는 만큼 국가법 제정이 필요했다는 것과 표기법이 공중물 때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표기 원칙을 처음 세운 시기에선 철자법 원칙을 담은 성문화된 규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북아국'이라는 발음을 가진 단어를 표기할 때 '북아국'이라고 쓰도록 하는 일반화된 원칙을 고안한 후에 이를 규정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규정을 바탕으로 다른 단어들의 표기법도 유추해서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어떤 규정에 근거해 단어를 표기할 수 없을 이유가 없다. '표준국어사전'이 있기 때문이다. 표준 표기법은 이제 사전에 있는 대로 따르거나 하면 된다. 바뀌어야

표준국어사전으로도 충분하다

아무도 북엇국이라 안쓰면 북아국으로 사전 오르게 될 것

로 발음되는 단어를 표기할 때 '북아국'으로 되어 있으면 '북엇국'으로 쓰면 그만이다. 영어 철자법은 훨씬 더 어렵고 원칙도 별로 없어도 일침의 위를 본 게 문제 자체가 아니다. 왜 그렇게 써야 하고 어떤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기에 그렇게 하고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면 되고 제언은 맞지 않느냐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 규정과 현실이 맞지 않는 걸 어떻게 하면 규정을 바꾸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게 된다. 하지만 한글맞춤법은 법이 아니라 '법'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는 한글로 쓰는 방법, 철자법을 통일할 기호대로 한 것이다. 그것은 1888년 한글맞춤법 통일안이 정정·표준되면서부터였다. 당시 성문화된 맞춤법 규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지만, 표기법의 통일을 처음 시도하는 만큼 국가법 제정이 필요했다는 것과 표기법이 공중물 때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표기 원칙을 처음 세운 시기에선 철자법 원칙을 담은 성문화된 규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북아국'이라는 발음을 가진 단어를 표기할 때 '북아국'이라고 쓰도록 하는 일반화된 원칙을 고안한 후에 이를 규정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규정을 바탕으로 다른 단어들의 표기법도 유추해서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어떤 규정에 근거해 단어를 표기할 수 없을 이유가 없다. '표준국어사전'이 있기 때문이다. 표준 표기법은 이제 사전에 있는 대로 따르거나 하면 된다. 바뀌어야



김정현 강사 한국어교수



신정영 고려대 국어국문학 교수